

대행 스님

마음의 촛불 하나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밝힌다

또 한 해가 지나가면서 부처님의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이날을 맞아 우리는 밖으로 부처님의 탄생을 기리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을 탄생시켜 준 부모의 은혜와 법의 부모의 은혜도 둘이 아니게 갚기 위해서 항상 각자 마음에다 관(觀)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와 중생들이 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육의 부모들도 자식과 둘이 아닙니다. 그걸 볼 때 우리의 생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낳아 주시고, 또 뜻을 일러서 가르쳐 주신 그 뜻을 기리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촛불 하나라도 켜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따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법의 부모도 육의 부모도 둘이 아니게 한 마음으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관하면서 촛불을 켜신다면 그 촛불이 바로 바깥으로는 형식이 되지만, 형식만이 아니라 정성이 되고 안으로는 진짜 촛불을 켜는 것이 됩니다. 마음의 촛불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월 초파일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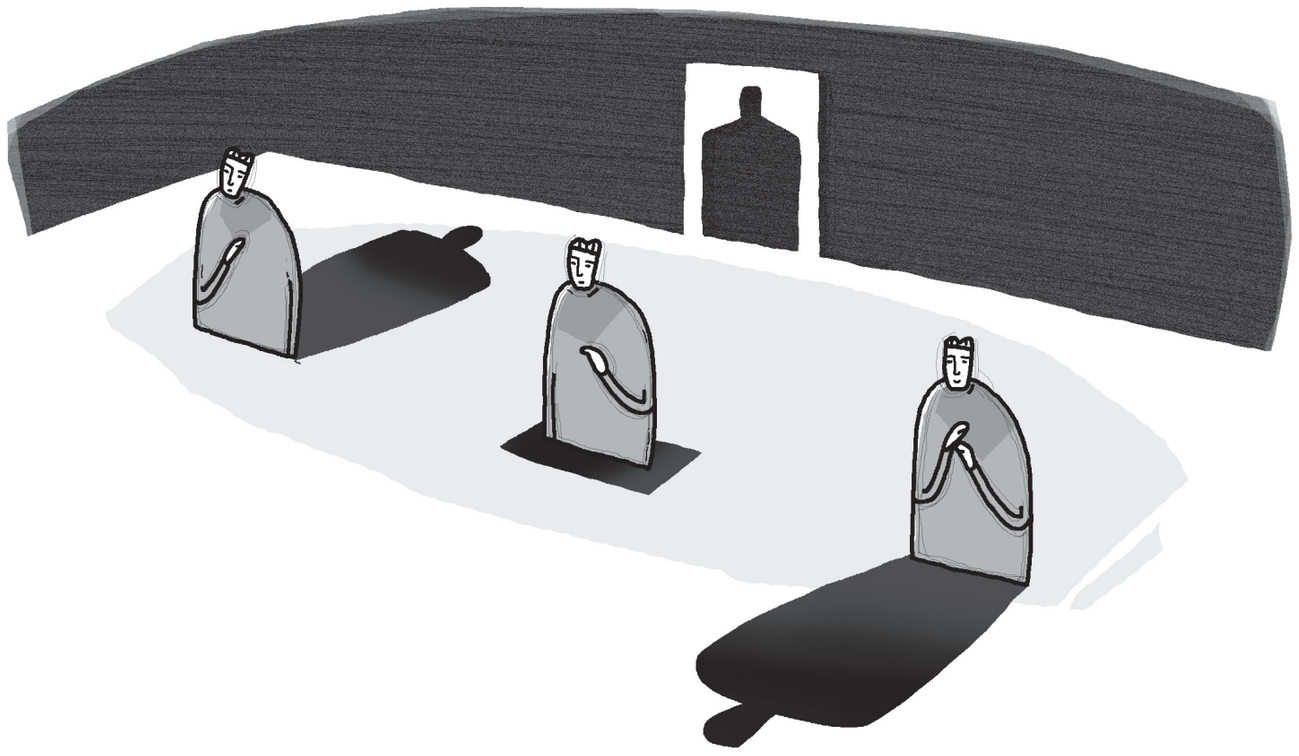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팔상성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도솔내의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하항마상, 녹원전법상, 쌍림열반상 이렇게 여덟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여덟 가지로써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모든 과정과 그 시대에 간곡하게 가르쳐 주신 그 뜻을 기리면서 우리는 수행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무 사유가 둘 아니게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셨다'고 한다면 팔상성도의 그 여덟 가지 문제를 다 함축해서 한마디로써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과정을 거치는 자체를 뼈 한 무더기로 비유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생자부라고 하는 그 뜻도 역시, 항상 들어서 아시다시피, 태로 나고 알로 나고 화해서 나고 질척한 데서 나고 하는 사생들을 모두 자기 아님이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 아닌 게 없이 했고, 자기 아픔 아닌 게 없이 했고, 자기와 더불어 같이 한도량에 있는 것을 제시했고, 또 모든 것을 둘 아니게 흡수해서 인연을 지으셨으니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불가에선 나유타 겁이라고 합니다마는, 나는 광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돼 보기도 하고 자식이 돼 보기도 하고 형제가 돼 보기도 하고, 그렇게 나오면서 자기 근본으로 인하여 진화를 해서 바로 형성되고 또 진화되고 형성되고 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업적이 얼마나 컸는지 헤아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를 볼 때, 우리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공기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고 바로 수억겁 광년을 거친 그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고, 미래로 돌아갈 수도 있고, 현재 또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인생살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공부를 함으로써 바로 그 뜻을 잘 파악해서, 바깥으로 그 탄신을 기리고, 팔상성도를 이름으로 기릴 게 아니라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항상 직결돼 있다는 사실을 믿고 행한다면 그것이 곧 실천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팔상성도를, 그 태어나고 그런 과정에 대한 것만 달달달달 외우고 알면서 바깥으로 끄달리면 아니 되겠죠. 그건 왜냐하면 부처님의 마음은 내 마음과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너부터 알아야 내 마음도 알아서 둘이 아니게 되느니라. 그래서 일체 사생이 너와 더불어 둘이 아니니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고로 이것은 내 마음의 부처님을 항상…, '주인공' 하면은 벌써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부모도 법의 부모도 일체 가정의 모든 분들도, 한 식구 한 형제라 할지라도 앞에 닥치는 대로 걸리는 대로 거기다 놓고 합류시켜라. 하나로 만들어라. 동일한 한마음으로 결부를 시켜라. 그렇게 된다면 걸림이 없어서 어떠한 난국도 대치하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항상, 그저 요만한 걸 보면 보는 대로 걸리고, 들으면 듣는 대로 걸리고, 남이 울면 울어야 하고 웃으면 웃어야 하고, 나하고 더불어이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원숭이같이 따라간다면 그건 진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진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은 99%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 1%를 넘지 못해서 우리는 중생으로 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공했다. (팔을 짚으시며) 이 보이는 게 공했다. 공한 것이 색이고 색이 공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항상 여러분한테 제가 말을 해 드리죠.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도 고정된 게 없어서 그냥 찰나찰나 듣고 넘어가고, 보고 넘어가고, 하고 넘어가고, 만나고 넘어가고, 움죽거리고 넘어가고 이렇게 그냥 걸음을 걸어오면서 그저 떼어 놓을 뿐이지 앞뒤가 없다." 하고요. 육조 스님이 말했듯이 우리는 지금 함이 없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해도 이것 보고 저것 듣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거 이르고 저거 이르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러지 고정된 게 하나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는 과거로 흘러가고 흘러가고 이러는데 거기에 무슨 애착이 붙고 뭐가 붙을 게 있어서 그렇게 업을 짓습니까? 잘된 업을 지어야지 못된 업을 짓는다면 아니 될 뿐 아니라, 잘된 업도 못된 업도 둘 아니게 그냥 놓고 넘어가야 마음공부에 직코스로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생일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생일이 돌아오면은 한 상 받고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나를 형성시킨 장본인인 법의 부모와 몸을 빌려서 나를 낳아 준 육의 부모의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이 안 나오는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엔 그런 것도 없었지만, 여러분이 근래에 뭐를 갖다 주면 저한테 좋은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부모의 같은 자식, 나도 역시 똑같이 한 법의 부모의 자식으로서 그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서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은 것도 고맙고, 허허허.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 공부도 가르쳐 주지 않은 것도 고마워요. 왜냐하면 내가 잘 배웠다면 내면 속에 들어 있는 이 광대무변한 뜻을 영 몰랐을 테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 마음공부 하는 데 유식하게 잘 배웠고 못 배웠고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월 초파일이 돼서 촛

☞ A28면으로 계속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www.bongeunsa. org
TEL 02)3218-4800 FAX 02)544-2141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